

전남 '아열대 과일 전략 작목 육성' 706억 투입

재배 면적 57.8ha로 제주도와 비슷...최대 생산 작목은 백향과·망고 시설 현대화 등 전년보다 89억 증액...농가 경영 안정·시장 선점 기대

전남도는 아열대 과일인 망고, 바나나 등을 고소득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산, 시설원에 단지화·집단지 등에 7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9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에 압박받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현재 아열대 재배 면적이 57.8ha로 제주(58.4ha)에 버금갈 정도로 아열대 과일 주산지다.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열대 과일은 백향과와 망고로, 지난 2021년 생산량은 백향과 136.6t, 망고 103.2t이었다.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올리브는 최근에 주로 식재돼 수확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파파야(46.1t), 바나나(42.8t), 커피(6.05t) 등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군별로는 담양군(72.2t)이 최대 주산지, 영광(50t), 해남(37.1t)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아열대 과일 농가 등 시설 원에 농가의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크게 상승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했다. 시설 원에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다중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105ha 90억원,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1.1ha 16억원, 기름 난방을 가격에 저

렴한 전기온풍기 등으로 대체하는 생산비 절감 사업 33ha 16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노후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시설 원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0ha 42억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00억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3ha 23억원 등 시설 원에 분야 10개 사업에 총 432억원을 지원한다.

망고 등 아열대 과수와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에 품목의 단지화·집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신소득 원예특단지 조성사업 16ha에 163억원을 활용한다.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생산시설 현대화 36억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과수 생산 기반 구축 30억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10ha 25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발생하는 서리, 냉해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시설 지원 200ha 20억원 등 과수 분야 4개 사업에 총 111억원을 확보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전남이 아열대 과수 전국 최대 생산지로 발돋움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용 난방비, 전기세 인상 등에 따른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아열대 과일을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설원에 단지화와 스마트팜 보급 확산 등에 706억 여원을 투입한다. 해남군 북평면 외룡리 땅끝부 바나나 농장.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농어촌 주택 1371동 리모델링해 도시민 유입

전남도, 전국 최대 물량 확보...사업 대상자 저리 대출 혜택

전남도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택 1371동을 개량하기로 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중 21%에 해당해 전국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자 순으로 사·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까지 허용하며,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금리 1.5% 적용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농어촌 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복합쇼핑몰, 체류형 관광·상생 방안 담아야"

광주시 '월요 대화'...강기정 시장, 전문가·활동가와 방향 논의

유통·도시재생 전문가와 소상공인 지원 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광주 복합쇼핑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 시장에서 열린 '월요 대화'에서 '광주의 내일이 기대되는 복합쇼핑몰'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복합쇼핑몰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 홍보, 유통업체·지자체·전통시장 간 네트워크 구축,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극비 지원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또한, 광주만의 색깔을 입힌 복합쇼핑몰 유치를 통한 관광도시 위상 구축, 도시브랜드 홍보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면서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유통 공룡'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너지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운아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익산에도 코스트코가 입점한다고 할 때 소상공인의 반발

이 컸지만, 설득을 통해 상생을 끌어냈다"며 "광주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쳐 지역 이슈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은 "하남, 대전 등은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면서 체류형 비즈니스 관광객이 대거 늘어나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졌다"며 "다만 쇼핑물 유치로 발생하는 집객효과, 매출액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생력을 보장할 수 있는 광주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척 전통시장의 청년창업몰 성공 사례와 패션의 거리였던 군산 로데오 골목의 카페골목 사례도 공유됐다.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이슈가 던져진 후 소상공인과의 상생, 이익공유 등을 많이 고민해왔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광주만의 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광주형 복합쇼핑몰이 구축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메타엠 고객센터 투자 협약

다음달부터 티몬 고객센터 위탁 운영...지역 인재 우선 채용

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고객센터 아웃소싱 기업인 ㈜메타엠(대표이사 신인수)과 고객센터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메타엠은 3월부터 60석 규모의 티몬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광주시는 조기 정착과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서비스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메타엠은 특히 광주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용,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 폭넓은 행정·재정적 지원 등 고객

센터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덕분에 (주)우아한형제들, (주)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형 업체의 고객센터 신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는 현재 보험·통신·금융 등 82개 분야 고객센터에서 70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19
	한국어교육학과	1
	복지상담융합학부	7
사범	유아교육과	2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2. 20(월) ~ 24(금)
· 전 형 일: 2023. 2. 25(토) 오전 10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사회복지학과(D.S.W.)	○
		코칭심리학과(D.Psy.)	○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2. 21(화) ~ 23(목)
· 전 형 일: 2023. 2. 24(금)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